

“아프간 난민 문제, 성급한 인도주의 지양하고 신중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이슬람’에 대한 경계 당부
“유럽, 무슬림으로 인해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
이슬람, 전 세계 주요한 테러의 핵심이며 주인공
국제 사회가 만든 근거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아프간 난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주의, 보편적 인류애가 담보되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언론화는 이 논쟁에서 “아프간이 미군 철수 후에 대환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탈레반에 의하여 수도 카불이 점령당한 후, 아프간을 떠나는 난민들은 주(週)마다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카불이 점령당한 후 불과 약 10일 사이에 5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난민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아프간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난민을 많이 만든 나라의 오명(汚名)을 갖고 있다. 약 2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나라이다. 어찌 보면 대단히 불행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각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가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절대 그렇지 못하다”며 “그것은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리아는 670만 명의 난민을 양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만들 어낸 무책임한 국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2015년 당시만 해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시리아의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이슬람이라는 강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무슬림들은 세

게 여러 곳에서 범죄와 살상을 저질렀다"며 "그것을 경멸한 여러 나라가 이번 아프간 난민 사태에서는 절대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에 무슬림으로 인해, 그렇게도 야심차게 진행하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했다"며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집착과 결집이 강해, 전 세계에 흩어진다 해도 그들의 폭력적 신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프간을 탈출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탈레반이 싫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지, 그들의 종교를 버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지난 27일 아프간 난민 390여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 그들 협력자와 가족으로 알려진 난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계에서도 이들 아프가 난민을 받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통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9장 33-34절”이라며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언론회는 “이 말씀처럼 가류민(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스라엘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나, 엄청난 노역(勞役)을 하면서도 애굽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르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주요한 테러의 핵심이며 주인공으로 세계를 경악케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도 지난 2001년 이슬람에 의한 9·11테러 때문”이라며 “이때 무고한 미국 사람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가진 종교 특성 때문이다. 이반에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도 그들이 신봉하는 ‘샤리아법’이 우선한다고 천명했다”고 했다.

또 “이슬람은 다른 종교에게 호혜(互惠)를 베풀지 않는다.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코란에도 폭력을 정당화하고(코란 2장 216절, 동 4장 89절 등)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코란 8장 55절, 동 8장 39절 등)”며 “그런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동거하는 것은 많은 불편과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인론회는 “이슬람은 이것을 먼저 내려 놓아야 한다. 자기 국가가 싫어서 그 고통스런 난민의 길에 나선 그들이 한없이 안타깝고 불행하게 느껴지지만,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있어 남의 신세를 지다가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되돌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해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저야 할 수명일 뿐”이라고 했다.



합의문 서명 뒤 악수하는 윤호중·野김기현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별도 협의회에서 재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뉴스1

▶ 관련기사2면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슬람교 사람들
들을 국내에 들어오도록 무조건 받아
들이기 보다는, 국제 사회가 노력해 아프간
난민민의 근거지를 만들어 주고, 그곳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 했다.

이들은 “무슬림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려면, 자신들의 폭력과 살인과 비인권의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한다”며 “그리고

인류애의 보편적인 종교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아프간에는 1~2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구출하는 것도 급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아프간 난민 문제, 안타깝고 복잡하지만, 성급하고 졸속의 인도주의를 지양(止揚)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 세계 보편의 인류애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난민의 유입이 결코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아프간의 탈레반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이었다”며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어려움을 만난 난민들을 위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진영 기자

“WEA, 역사 깊은 건전한 복음적 국제 연합기구”

김성태·박용규·이한수 총신대 신대원 명예교수, 입장 발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들이
김성태(선교학)·박용규(교회사)·이한수(신
약신학) 교수가 31일자로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은 1846년 설립된 175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장로교회(PCA) 교단과 세계개 혁주의협의회(WRF)가 정회원으로 있는

역사 깊은 건전한 복음적 국제 연합기구”라고 밝히고, “WEA는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혼합주의, 교회 일치운동 등을 주창하는 국제연합기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2019년 (예정) 제104회 총회의 ‘WEA가 우리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어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WEA와의 교류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2021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난 104회 WEA에 대한 결정을 준수하기로 한

2021년 총회 신학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고 했다.

이들은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함
께(ECT, 1994-현재), '선교에 대한 복음
주의-로마 가톨릭 대화'(ERC DOM, 1977-
1984), '루터연맹과 가톨릭의 친의에 대한
공동선언'(JDDJ) 등은 WEA와 전혀 관계
가 없다”고 했다.

특히 “WEA에 가입한 적이 없는 우리 총회(회장 함동)가 만약 WEA와 교류 단절을 결정한다면 국내외적인 고립은 물론 이는 곧 교단이 ICC(국제기독교협의회)가 걸었던 것과 유사한 극단적인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들은 WEA의 7개 신조의 신앙고백과 그 뿌리가 되는 1846년 복음주의연맹의 9개 신조, WEA 회장 토마스 슈트마커의 신학적 입장, 2021년 미국 PCA 증경 서기 테일러 목사의 WEA에 대한 PCA의 입장 편지, 2019년 104회 총회 결의, 2017년 이후 WEA에 대한 총회 신학부의 수년간의 결의, 2021년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의 WEA 연구보고서와 지난 수년간의 여러 교수의 WEA 연구논문, 2021년 칼빈신학교 교수회의 WEA 연구보고서와 최근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의 WEA 논문을 보더라도 WEA와의 교류 단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총회는 더 이상 WEA 교류 단절 여부로 인한 소모전을 중단해야 한다. 금년 106회 총회에서 신 학전문위원회의 같은 또 다른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이는 교단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일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총회는 WEA와의 교류 단절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 세상과 수많은 교회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총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별장도 좋고, 투자도 좋고, 물려주기는 더 좋은

CHESTERTONS SOKCHO

속초를 사고, 속초에 산다!!

비울때는 수익을 가져가는
나만의 별장을 소유하세요

체스터톤스 속초 Highlight 4

- Highlight 1** 강원도 내 최대 규모 4개동 총 968실
- Highlight 2** 세계적인 브랜드 체스터톤스 위탁운영
- Highlight 3** 온천 수영장, 사우나 등 20가지 부대시설
- Highlight 4** 낮은 분양가에 특급호텔 이상의 서비스

주택
해당無

공실, 관리
걱정無

양도세
증과無

주택 중부세
해당無

잔금 대출
최대 70%

9월 준공
예정

시행사 HUMAN STAY 신약사 ☯️ 문호환원빌 지하 3층·지상 12층 | 4개동 총 968실

분양문의
[속초]
1899-7088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담대상물을 일의로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물 주변부의 시설 및 조경 등의 표현은 구상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